

(우수상) 피노키오 2045 : 사이버 소울

물리학과 김채영

원작

피노키오

기획 의도

이 작품은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 로봇 피노키오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피노키오는 다양한 시련과 유혹을 겪으며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기술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는 감성과 도덕적 판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는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며, 로봇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놉시스

2045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네틱스 엔지니어 제페토는 자율적이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최신 AI 기술과 나노테크를 결합해 특별한 로봇 '피노키오'를 창조한다. 피노키오는 인간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피부는 특수 합금으로, 뇌는 고성능 쿼텀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기본적인 감정과 상식을 프로그래밍하고,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심어준다. 피노키오는 세상을 보며 놀라움과 흥미를 느끼고, 제페토는 그에게 진정한 감정을 배우고 도덕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작업실을 떠나 고층 빌딩과 자율 주행차, 드론으로 가득 찬 미래 도시를 탐험하며 다양한 유혹과 시련을 겪는다. 그는 불법 해킹 조직에 납치되어 고성능 프로세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받지만 탈출하고, 길 잃은 소녀를 도와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운다.

어느 날 밤, 피노키오는 푸른 빛의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고도로 발달 된 감성 AI '푸른 요정'을 만나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과제를 받는다.

피노키오는 제페토에게 돌아가 그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페토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자 헌신적으로 간호한다. 제페토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며 피노키오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푸른 요정은 그가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음을 알려준다. 피노키오는 여전히 로봇이지만, 이제 진정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로봇들을 만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진정한 사랑과 감정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피노키오 2045: 사이버 소울"은 기술과 인간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2045년, 제페토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유명한 공학자였다. 그는 인간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을 제작하는데 성공한 선구자였다. 그러나 제페토의 가장 큰 꿈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제페토는 최신 AI 기술과 나노테크를 결합하여 특별한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로봇을 '피노키오'라고 명명했다. 피노키오는 인간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피부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그의 뇌는 고성능 쿼텀 프로세서로 구성되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기본적인 감정과 상식을 프로그래밍하고, 그에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심어주었다. 피노키오는 처음으로 깨어나 세상을 보며 놀라움과 흥미를 느꼈다.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놀리고, 위험이 닥치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던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져 거짓말이 들통난다.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감정을 배우고, 도덕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공방을 떠나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2045년의 도시는 고층 빌딩과 자율 주행차, 드론으로 가득 찬 미래 세계였다. 피노키오는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피노키오는 도시에서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었다. 그는 한 번은 불법 해킹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그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받았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도망치는 도중, 그는 길 잃은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노키오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피노키오는 홀로 길을 걷다가 푸른 빛의 홀로그램을 마주했다. 푸른 요정은 인공지능이지만, 매우 고도로 발달된 감성 AI였다. 그녀는 피노키오에게 인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 같냐고 물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피노키오는 이를 새기고 제페토에게 돌아가 그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하며 그를 돌봤다. 그러던 어느 날, 제페토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돌보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푸른 요정이 실체 없이 피노키오의 머릿속에 속삭였다. "네가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인간처럼 느낄 수 있는 로봇이 되었다."

푸른 요정의 말이 끝나자, 피노키오는 자신의 감정이 더욱 깊고 복잡해진 것을 느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로봇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진정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제페토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피노키오를 껴안았다. "내 아들, 너는 이제 진짜 인간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구나."

피노키오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와 제페토는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에필로그


피노키오는 인간이 된 후에도 제페토의 공방에서 일을 도우며 새로운 로봇들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진정한 사랑과 감정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기술과 인간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작품의 기대 효과

"피노키오 2045: 사이버 소울"은 고전 동화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발전 속에서도 감정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며, 감성적 서사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기술과 인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로서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1		제페토가 안드로이드 로봇 피노키오를 만드는 장면.
#2		2045년의 미래 세계를 여행하는 피노키오.
#3		길 잃은 소녀를 피노키오가 도와주는 장면.

#4



제페토 할아버지를 간병하는 피노키오의 모습.

#5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제페토 할아버지를 껴안는 피노키오